

“임기만료 후 차기 회장 선출 문제”

고성군생활체육회 일부 이사들 제기...사무국 “총회에서 선출방식 정하도록 규정”

고성군생활체육회가 지난달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18일 임기 4년의 제7대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이사들 사이에서 회장 임기가 만료된 후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성군생활체육회 소속 일부 이사들은 “회장의 임기는 선거가 있는 해의 정기총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난달 24일 총회 이전에 차기 회장을 미리 선출하거나, 적어도 총회 당일 날에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급기관의 임명직이 아닌 경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단체들은 회장 임기 만료 이전에 차기 회장을 미리 선출한 뒤 이·취임식 이전에 업무 인수인계 등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총회 자리에서 바로 선출해 회장직이 공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명을 요구한 고성군생활체육회 이사는 “이번에 회장 선거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임시총회를 열어 선거를 미리

실시하거나, 최소한 준비과정을 거쳐 총회 당일 날에는 투표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생활체육회 서동현 사무국장은 “그동안 추대 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다보니 총회 당일 날 바로 새 회장이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다음부터는 타 단체들처럼 총회 전에 미리 회장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 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생활체육회는 차기 회장 선거에 대해 총회에서 논의를

해서 투표를 할 것인지 즉석에서 추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고성군의 경우 규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장의 임기는 총회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책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성군체육회가 지난달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지명호 생활체육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18일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될 수도 있는데 미리 임명한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최광호 기자

지명호·홍순홍 2파전 양상

생활체육회장 선거 18일 오전 10시 실시

오는 18일 실시되는 고성군생활체육회 제7대 회장 선출을 앞두고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성군생활체육회는 지난달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3월 18일 오전 10시 고성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생활체육회 사무실에서 신임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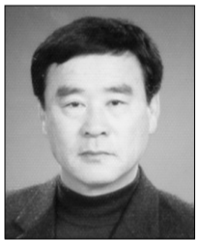
공고일은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이며, 후보등록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이다.

고성군생활체육회에 따르면 4일 현재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지명호 직전 회장과 홍순홍 생활체육배구연합회장 등 2명이다.

지명호 직전 회장은 제4대 후반기 회장에 선출된 뒤 5대와 6



지명호



홍순홍

대까지 내리 10년 동안 군생활체육회장을 역임했다.

홍순홍 배구연합회장은 40여년간의 교직에 봉직했으며, 고성군 배구선수로 도민체전에 출전한 경력이 있다. 지난 2009년 생활체육배구연합회장에 취임했다.

투표는 각 연합회 회장과 읍면별 이사 등 총 32명의 이사들이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최광호 기자

향토문화연구 공로 김광섭씨 군수표창

고성문화원 2011년 정기총회 개최

고성문화원(원장 황연인)은 지난달 28일 오전10시30분 고성문화의 집 1층 영상음악실에서 기관단체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0년도 감사보고, 201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또 향토문화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고성향토문화연구회 김광섭 사무국장에게 군수 표창이 수여됐다. 박승근 기자



지난달 28일 열린 고성문화원 2011년도 정기총회 모습.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독립운동가 이석규(李錫圭), 당시27세

1894년 9월 7일 ~ 1960년 7월 31일

본적은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백촌리(柏村里) 157番地이며, 호(號)는 삼호(三乎)이다.

선생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1919년 3.1독립운동이 전개되어 각처에 파급되자 독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 이에 적극 호응하여 동지(김형석(金亨錫)·이근옥(李根玉)·김연수(金延洙)·문명섭(文命燮) 등) 규합하여 3월 14일 토성면 교암리(橋岩里) 장날을 기하여 태극기를

준비하고 주민 약 300여명을 동원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동향인(同鄉人) 이근옥(李根玉)의 권유로 동년(同年) 10월 중순경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에 가입한 이래로 동년(同年) 10월 하순 토성면 운봉리(雲峰里)의 이근옥(李根玉) 자택에서 김연수·문명섭 등과 함께 상해로 건너가서 가정부에 들어가 조선독립운동을 위하여 진력하는 취지를 교사 받고, 동인 등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각각 여비를 조달하여 동월 30일경에 동군(同郡) 간성(杆城)에서 이근옥·김연수·문명섭 등과 합동하여 동지를 출발, 철원에 이르러 이연수(李延洙)를 회견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성(京城)에 나와서 애국단본부(愛國團本部)를 찾으려 하였으나 결국 이를 찾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김연수·문명섭 등과 다시 귀향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1920년 1월 철원애국단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피체(被逮)되어 동년(同年)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정치범죄처벌령 제1조에 각각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167조 제2항에 의거 회부한바 있다.

선생은 그 이후 1940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의 군자금 모금에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8.15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으며,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出典 :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 권9, p.990~1008. 『강원도항일독립운동사(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 第1卷, 光復會江原道支部, 1991年, p.532. 『고성군지(高城郡誌)』 1998年, p.144. 『독립유공자공훈록(獨立有功者功勳錄)』 권7, p.565.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